"후손들에 '고건축문화' 전해야죠"

한국건축박물관 짓는 전흥수씨

10월 24일 예산 덕산면에 1차 개관
사재 1백억원 들여 2002년 완공

"수덕사 대웅전, 부석사 등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훌륭한 건축물을 많이 지어왔지만 조상들의 슬기와 기능을 전승발전시키지 못하고 당대에 끝나고 만 것이 아픈 교훈으로 생각돼 한국건축의 역사와 체취를 느낄 수 있는 박물관을 만들어야겠다는 원력을 평생 가슴에 품어왔습니다."

국내 최초로 충남 예산군 덕산면 대동리 산 23-4에 '한국건축박물관'을 건립하고 있는 전흥수 한국문화재보전수리기능협회장(61)이 그 1차 개관을 10월 24일 갖는다. 내년이 바로 '건축문화의 해'여서 한층 의미가 깊은 '한국건축박물관'은 총 5천여평 대지에 연건평 1천여평으로 모두 11개 동의 건물이 지어질 예정.

이번에 개관하는 건물은 본관과 요사채 2개동으로, 개관에 맞춰 24일부터 11월 14일까지 문화재보전수리기능인협회원들의 창립 10주년 기념 특별전도 개최, 목각 석조 탱화 등 2백여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최첨단 서양식 건축만 제일인 줄 아는 젊은층에게 우리 고건축의 우수성 등 전통문화에 대한 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싶어요. 파괴되고 소실된 유산은 어쩔수 없지만 현재 남아있는 문화유적만이라도 잘 보존해 후손들에게 그 소중함을 일깨우는 것이 우리 기능인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재 1백억원을 들여 건립되고 있는 박물관은 제1전시관(본관), 사진전시관, 사대부가옥, 평민가옥, 초가삼칸, 중국관, 일본관, 연수원 등 한국의 모든 건축술과 건축미가 응집되며 이 대역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은 오는 2002년.

전시관에는 사찰 등 고건축의 미니어쳐와 건축에 쓰였던 기구 등 우리나라 건축에 관한 모든 자료들이 일목요연하게 전시되어 시대별 건축발달사를 보여준다. 또 한국건축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전수장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과 해외교포들에게 우리 문화의 얼과 문화를 체험하는 산 교육장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10월 24일 개관식을 갖는 '한국건축박물관' 본관의 전경.

전흥수회장은 18세의 나이에 한식목공(韓式木工)분야에 입문, 1955년 대목장 故 김중희선생을 만나 기능을 전수받았다. 전통장인들 대부분이 그러하듯 생활고와 주위의 무관심등으로 어려운 시절을 겪었으나 오로지 불심과 전통문화를 이어가겠다는 집념으로 고난과 역경을 이겨냈다. 전회장은 좌절할 때면 항상 사찰을 찾아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며 단아한 고찰의 모습을 대하노라면 어느덧 평정심이 되찾아지고 힘을 다시 얻곤했다며 '한국건축박물관' 원만회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한다.

이경숙 기자
(gslee@buddhapia.com)

불심시심 〈145〉

북극성을 삼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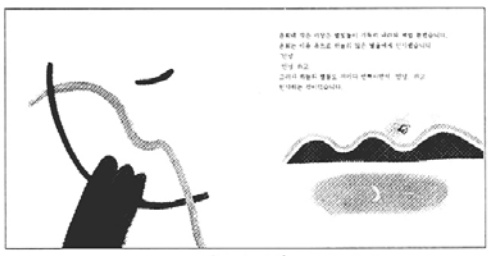
慮陵山水其蒼蒼 (여릉산수기창창)	여릉의 산수는 아마도 아슬하지만
三笑遺風尙不亡 (삼소유풍상불망)	세 사람의 웃음은 유풍으로 아직 남아
明月近人留淨界 (명월근인류정계)	밝은 달 사람에게 가까워도 청정계 머물고
詩朋同我宿禪牀 (시붕동아숙선상)	시 친구는 나와 함께 절 침상에서 잔다
雲晴天抱魚龍氣 (운청천포어룡기)	구름 개인 하늘은 어룡 기운을 안고
夜靜樓含斗極光 (야정루함두극광)	밤 고요한 누대는 북극의 빛을 삼킨다
愛國誠深今作客 (애국성심금작객)	나라 사랑 정성 깊어 지금은 나그네라
夢魂應復繞高堂 (몽혼응부요고당)	꿈은 응당 부모 처소를 맴돌겠지요.

징월대사의 '높은 벼슬아치에 차운한(次都大雅)'라고 한 시이다. 여릉의 동림사에 머물고 있던 혜원(慧遠)이 도연명과 육수정을 만나 호계를 넘지 않겠다던 약속을 깨고 건너버려 웃었던 것처럼, 오늘 나도 지기의 손님을 맞아 격 밖의 일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으로 서두를 삼았다.

밝은 달이 아무리 사람 가까이 있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청정의 저쪽 세계에 머무는 것이지, 인간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어쩌면 속계의 손님과 자신의 거리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듯하지만, 한편으로는 두 사람의 인품적 고결성을 은연중에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두 사람의 그러한 거리를 오늘은 한 자리로 당겨놓았다. 그것은 시로서의 친구이기에 또한 가능하다. 이 시의 친구(詩朋)의 밀착이 돋보인다. 구름이 걷히면 하늘도 개었다 한다. 이때 하늘은 구름을 대신하여 용의 위력을 갖는 것이다. 지금 이 벼슬아치는 임금의 위력으로 상징되는 어룡의 기운을 대신하는 것이다. 밤이 깊은 누대는 북극의 빛을 독차지하여 더 장엄하다. 북극의 빛을 삼켰다 하였다. 이것이 모두 지금 친구로 찾아준 유가의 대가에게 있다. 손님의 처지를 상징적으로 잘도 표현하였다. 이것이 바로 인간과 자연을 조화롭게 풀이하는 시인의 묘수인 것이다.

한편 시어의 공간 구성도 매우 치밀하다. 하늘이 어룡의 기운을 안았다 하였으니, 아래를 위의 공간으로 끌어올렸고, 누대가 북극성을 삼켰다 했으니, 위의 공간을 아래로 당겼다. 모두 중화의 위치로 정돈시켰다. 이 또한 자연을 내게로 이끄는 스님이나 시인의 사상적 의태이다.

이종찬 〈동국대 명예교수〉



◇그림동화 '별이야기'의 한 장면.

"자녀들 동심 키워주세요"

고은 글-한수련 그림 그림동화 '별이야기'

"나도 너만 했을 때였단다…. 그렇지. 내가 다섯 살 때였던가…, 하나 둘 셋 하고 별을 세다가 그만둔 적이 있었지." "몇 개까지 셀 수 있었는데요?" "응, 처음에는 마흔몇 개까지 셀 수 있었지.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삼천 개까지 세었다는구나."

아이는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별나라가 무척 넓다고 느끼면서도 무섭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날 밤, 윤희는 마치 이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처럼 무서웠습니다. 그것은 별 때문이었습니다.

여명출판사의 '너랑나랑 창작그림동화' 시리즈 〈별 이야기〉, 시인 고은 할아버지가 어렸을 적 고운 밤 하늘의 별을 세며 누렸던 기쁨을 생각하며 아이들도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글을 썼다. 이 아름다운 동화에 서양화가 한수련씨가 화사한 색상에 유화의 부드러운 감촉으로 옷을 입혔다.

엄마와 함께 읽는 사이,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도 태어나기 훨씬 전인 먼 옛날 옛적의 별빛이 먼길을 쉬지 않고 달려와 자신의 눈에 초롱초롱 빛나고 있음을 아이는 알게 된다. 그런 밤 하늘의 별을 〈별 이야기〉이야기는 더욱 아름답게 수놓는다.

"밤 하늘의 별을 보면서 멀고 먼 우주의 저 작은 별을 꿈꾸는, 동심으로 가득한 자녀로 키워 보시는 게 어떨지요…."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경주유물 보관동' 짓는다

경주문화재硏, 5만여점 수장계획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99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경주지역 출토유물 5만여점을 수장할 경주출토유물보관동 건립을 추진 중이다.

70년대부터 황룡사지 황남대총 등 경주지역에서 발굴된 유물들은 그동안 경주시 구황동 황룡사지에 위치한 조립식 가건물 3개동 4백20평에 보관 관리되어 왔다. 이러한 관리방법에 대해 각계에서는 5만여점이 넘는 유물들이 가건물에 보관되고 있는 것은 도난과 훼손에 대한 방치라며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총 88억원이 투입될 유물보관동은 연건평 7백50평에 지하 1층, 지상 2층인 철근콘크리트 건물로 지어질 예정이다. 유물보관동은 유물을 보존하는 장소로서의 용도 뿐만 아니라 황룡사지 가건물에 있는 학예연구실과 청사관리실도 옮겨올 예정이어서 문화재관리 및 연구에 대한 효율성 상승효과도 괴하고 있다. 보관동의 야외에는 전시관을 만들어 출토유물의 공개도 가능해진다.

70년대부터 현재까지 경주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은 모두 9만3천여점. 이 가운데 5만여점이 가건물에 보관돼 있다.

강지연 기자(jygang@buddhapia.com)

소프라노 이정지씨 가곡음반 '멀리있기'

'연꽃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서정주)' '해후(고은)' '멀리 있기(유안진)' '회귀(김지하)' '그건 바람이 아니야(류시화)' 등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시인들의 서정시들을 노랫말로 한 새로운 가곡 8편이 CD로 출반됐다. 이종구교수(한양대 작곡과)가 곡을 붙이고 소프라노 이정지씨가 노래한 이 음반의 이름은 '멀리 있기'(킹 레코드 제작).

한국가곡의 정형적 서정성에 현대적 감각과 대중성을 더한 이번 음반에서 가사전달이 용이한 새로운 발성스타일의, 이정지씨는 편안하면서도 매혹적인 노래를 들려준다.

청량사지 남매탑 보물지정

문화관광부는 남매탑으로도 불리는 충남 공주시 소재 청량사지 오층석탑과 칠층석탑〈사진〉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1284호, 제1285호로 15일 지정고시했다.

청량사지 오층석탑은 단층기단에 5층 탑신, 옥개석을 쌓았고 상륜부는 노반과 보주형태의 부재가 남아있으며, 얇고 넓은 옥개석과 안쪽으로 경사지게 빗깎아 놓은 옥개밑침 등이 특징이다. 제1285호로 지정된 칠층석탑은 단층기단에 7층 탑신, 옥개석을 쌓았고 상륜부는 노반만 남아있으며, 옥개석의 2단 층급받침 기법 등이 미륵사지 석탑의 양식을 띠고 있다.

한 사찰내에 각기 특징있는 두 유형의 백제탑 양식을 모방하여 세운 특색있는 조형수법을 보여주는 고려중기의 석탑이다.

문화 단신

보리수합창단 연주회

조계사청년회 보리수합창단은 26일 오후7시 서울 정동극장에서 제20회 정기연주회를 갖는다. 김회경 이준형 민선희씨 등 객원지휘자를 초청해 열리는 이번 연주회는 1부와 2부로 나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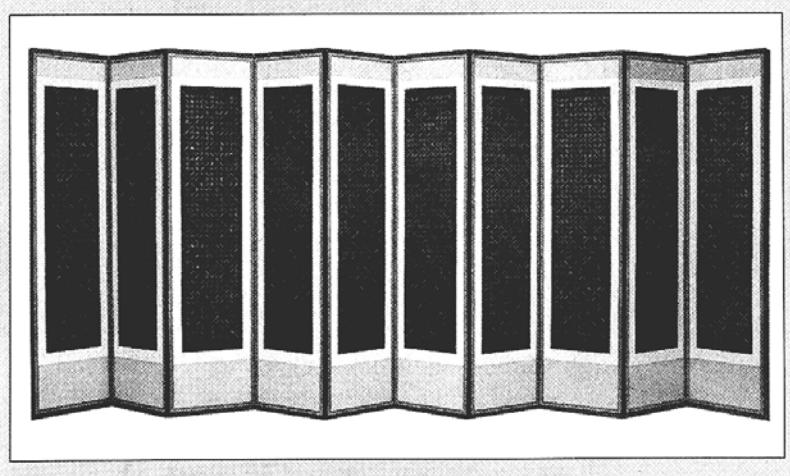
1부는 보리수합창단이 '즐거운 날' '부처님 내게 오셨네' 등을, 정태웅외 5명 중창단이 '광야에서' '상록수'를, 도신스님의 노래와 대금연주가 있다. 2부에는 보리수합창단이 '일심참회' '보리심' '그대 그리워' 등을, 국악인 최규연씨가 국악가요 '연꽃 피어오르리' '민들레'를 부르고 김태곤씨와 원심회의 수화노래가 공연된다.

사찰음식 불국사 전시

한국전통사찰음식연구소(소장 적문)는 '98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맞아 불국사 경내에 특별전시관을 마련, 사찰음식 상설전시와 함께 전통사찰음식 강연·시범실습을 갖는다.

불국사 경내 청운교앞 특별전시관에는 사찰음식의 진수를 알릴수 있는 사찰김치를 비롯 7백여 사찰음식이 교체전시되며 11월 10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오전 10시, 오후 2시 2회)에는 두부 버섯을 이용 등 50여가지 사찰음식 만드는 법이 소개된다. (0561)745-0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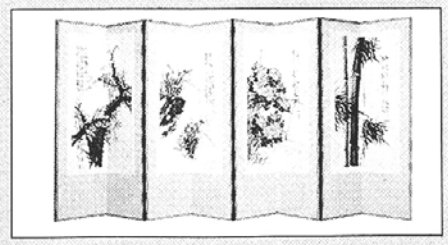
금강경金書공단병풍보급



■ 작품
· 전면:금강경(金書)
· 후면:팔상록(金畵)
■ 재질
양면고급비단
스기목/고급죽절
10폭양면병풍
■ 보급가격
₩550,000

■ 석가세존일대기 병풍(8폭)
· 후면: 추사 김정희선생 법필 · 보급가: ₩450,000
■ 大報 부모은중경병풍(10폭)
· 후면: 추사 김정희선생 법필 · 보급가: ₩550,000
· 대를 물려도 뒤틀림이 없는 성보병풍입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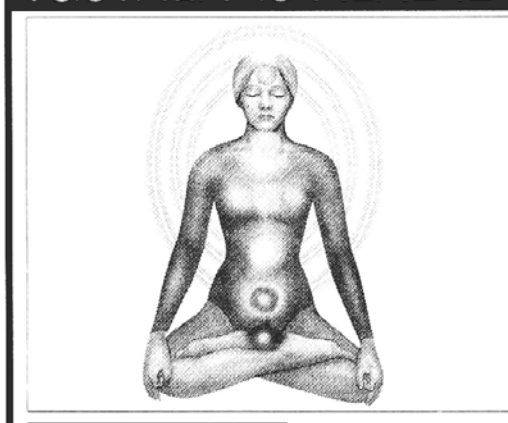
林泉거사진품 사군자 8폭 병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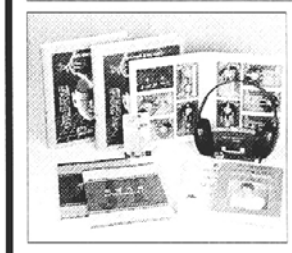


▶ 林泉 朴秀春 作 · 후면: 한시제문 · 특가:₩580,000

불국기획 대표전화 (02)737-0048 공장전화 (0351)877-3540

⊙ 방법을 바꾸면 효과가 빠릅니다. ⊙
수행,공부,학습,기도,능력개발,체질개선...





1 초진언氣파동공명 진동음 특수테이프
2 두뇌잠재능력개발 테이프
(천재기억교재 포함)
(소비자가격:350,000원)
※ 특별할인가 198,000원

■국민은행 287-21-0069-284
평화은행 326-24-0000-282 (예금주: 이부환)
입금후 전화하시면 전국 어느 곳이든 택배(또는 우편)로 곧 보내드립니다.
*구입하시는 분께는 5가지 선물을 함께 보내 드립니다.(한정분량)
(1.책 묵조선,간화선을 비롯한 각종수행비법을 科學的 시각으로 기록한 국내서적1권+2.책 내면세계탐험(외국번역서)1권+3.소형카세트+4.헤드폰+5.수행 및 학습용 소음차단 특수마개 2벌)

1. 초자연 氣의 소리 超 파동공명 振動音

▶ 특수한 소리에너지의 비밀

구분	내 용 설 명
內界音 2가지 제작방법	1.불교의 진언중의 기본이며 최고 聖音「옴(AUM) :우주창조진동音」소리 2.내면(內界)세계의 「차크라의 진동」소리 위의 1과 2의 소리를 가청화(可聽化)시켜 합성한후 특수학사근HEXAGON장치를 통과하여 파동공명진동음(超.共動共鳴振動音)으로 증폭 재현하여 첨저한 현대과학의「뇌파이론」과 결합시킨 3년간의 연구와 개발로 탄생된 작품
파동 공진음의 효과	◆초자연적 음은 무조화상태(정신의 산란 무능력 질병따위)에 있었던 심신이 원래의 완전한 상태로 회귀하도록 하므로 연속된 파동공명진동음에 인간이 동조 (同調)작용을 일으키면 뇌파를 알파파는 물론 10년~20이상의 수험자의 경지에서 나타나는 심대의 창조적인 뇌파인 깊숙한 세타파.델타파까지 내려가게 하므로 마음이 안정되고 집중.삼매상태에 쉽게 이르도록 하며 신체는 氣(생체에너지)가 활성화되어 질병에 대한 자연치유력을 향상시켜 체질개선의 효과 집중력향상,두뇌개발,超학습,잠재능력개발,기도성취,心身聖化,開運.
많은 문헌들에 기록된 내면의 소리와 聖音 옴 AUM의 의미와 위력(偉力)	◆신비음향으로 우주창조音,地球자전音,소울음소리,차크라에너지의 소리 '부처님의 聖界 언어로 영계의 에너지를 큰트롤하므로 수행자는 신기하게 집중이 잘 되어 삼매의 경지에 이르고 일반인이 외우면 재난이나 질병을 막아주는 부적음 '정신세계에는 영파진동(靈波振動)이 일어나 수행의 높은 경지에 쉽게 이르도록 해줄 뿐 만이 아니라 두뇌가 명석해지고 잠재능력이 개발되며 운이 좋아지게 되고 신체의 일천억개의 세포에서는 굉장한 힘의 자기파의 진동이 일어나 생체에너지(氣)가 축적 · 차크라개발.

⊙녹음테이프 구성(총 10개)
1. 심신을 개발 향상하는 7가지의 초 · 파동공진音 테이프 7개
2. 소원성취의 기도자를 위한 테이프(목탁소리가 합성됨)1개
3. 학습, 공부를 위한 테이프 2개

⊙ 스스로가 놀라게 됩니다. 듣기만 하여도 심신안정과 氣의 작용을 느낄 수 있다.
⊙ 수행,학습,기도등이 지루하지 않고 쉽게 되며 시간이 빨리 흐르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잘 된다.
⊙ 보석이나 백가지 부적(符籍)보다 특수한 소리에너지가 개운(開運)과 소원성취에 훨씬 더 낫다.
⊙ 先사용자들의 감탄과 격찬'-불가사의한 위력과 기적적인 효과를 직접 체험하십시오' 본 제품(녹음테이프)은 의약품이나 의료기구가 아닙니다.

2. 두뇌잠재능력개발 테이프 : 천재기억(24개)
◆내용 : 후천적 천재가 되는길,정신집중법A,B, 뇌훈련, 속독법, 태식, 요가,단전호흡법,건강법,형상화이론,수험생,일반인들이 활용하는 각종기억법,학습기억,무한연상,동시활용법>

21세기 超高(科學) 修行員 ☎ 032)546-2110